

Authorship and Integrity of the New Testament. London : S.P.C.K., 1965.

\_\_\_\_ *Partition Theories on 2 Corinthians* in *Studia Evangelica*, Vol.2. Berlin : Akademie-Verlag, 1964.

Strachan, R.H.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New York and London : Harper and Brothers Pub., 1935.

Tasker, R.V.G.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 Eerdmans, 1958.

\_\_\_\_ *The unity of 2 Corinthians* in *The Expository Times*, vol. 47, 1935.

Thompson, James. *The Second Letter of Paul to the Corinthians*. The Living Word Commentary series edited by Everett Ferguson. Austin, Texas : R. B. Sweet Co., INC., 1970.

Thrall, Margaret. *A Second thanksgiving Period in 2 Corinthians* i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Vol.16, 1982.

Weiss, Johannes, *Earliest Christianity : A History of the Period A. D. 30-150*. New York : Harper & Row Pub., Vol.1, 1959.

Young, Francis and Ford, David F. *Meaning and truth in 2 Corinthians*. Grand Rapids : Eerdmans, 1989.

Zahn, T.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Edinburgh : T & T. Clark, 1909.

# 한국교회사 연구 및 사관에 대한 평가와 반성

A Study of Historiography  
on the Korean Church

한국교회사 연구사와  
교회론적 사관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상규 교수  
Prof. Dr. Sang-Gyu Lee

I. 한국교회사 연구편찬	-----	130
1. 1920년대까지의 연구	-----	131
2. 1930년 - 1945년까지의 연구	-----	134
3. 1945년에서 1960년까지의 연구	-----	137
4. 1970년대	-----	148
5. 198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사 연구	-----	154
II. 민족교회사를 넘어서	-----	162
1. 선교사관의 문제	-----	163
2. 민족교회사관	-----	165
III. 결론 - 교회론적 역사편찬을 지향하며	---	168

## Abstract

This paper has two objectives, the first one is to introspect and to assess the history of the study of the Korean church history from the missionaries' s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in early 1900' s to recent studies of 1990' s,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published books on Korean church history. To reviewuate the studies of the Korean church history, research extent is divided into 5 periods, that is, researches until 1920s, from 1930-1945 when the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1945 to 1960s, studies in 1970, and studies in and after 1980s. In each period, the main publications including dissertations on the topics were treated extensively, and pursued the development of the studies of the Korean church history with critically in relation to methodology.

The second objectives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view of Korean church history. Mainly there has been three types of the views of history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studies, the first one is a view of mission history which was initiated by George Paik, the first Korean scholar who wrote the foreign missionary movement in Korea, in his 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Seoul: Yonsei Univ. Press, 1971).

He viewed church history as that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like K. S. Latourette or H. Bavinck. The second type were nationalistic view of history, which the patron saint were Dr Kyung Bae Min who wrote A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The sub title of his book, A History of a Formation of the Korean Nationalistic Church (Seoul: Yonsei Univ. Press, 1993)

demonstrate his nationalist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hurch history. The third one is Minjung understanding of history though not fully developed until the late 1980' . As these three views hav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logic and description of history, the write suggested a new understanding of history, that is, ecclesiastic or ecclesiastical approach to history, which can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previous view of church history produced. This view, I believe, has biblical basis, and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church is one body in Christ, ecumenicity of the church, rather than Eigenständigkeit or proprium Coreanum of the Korean church.

이상규, 고신대학 신학과(BTh) 신학대학원(M.Div),대학원을 거쳐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PCT)에서 교회사를 공부하고, 호주신학대학(ACT)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얻었다.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로 교회사와 역사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한국에서의 칼빈연구 100년, 1884-1984」(개혁주의신행협회), 「성경연구의 이론과 실제」(총회교육위원회), 「한국 교회의 역사적 흐름」(총회교육위원회), 「성경연구입문」(총회교육위원회), 「행복한 가정생활」(공저, CUP),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서편제」(공저, CUP), 「교회개혁사」(성광문화사), 「고신선교40년」(공저, 총회선교부), 「교회의 역사」(영문출판사), 「의료 선교의 역사」(한국누가회) 등이 있고, 최근 「한상동복사, 그의 생애와 사상」(글마당)을 편집출판했다.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지난 세기 한국에서의 교회사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는 일은 보다 발전적인 교회사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지난 한 세기 동안의 한국교회사 연구사를 주요 논저를 중심으로 서지적 관점에서 점평(點評)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한국교회사 연구와 편찬에 대한 역사(historiography)를 나름대로 정리해 두고자 하는 소박한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후일의 한국교회사 연구의 정확한 인식과 자성, 그리고 창조적인 연구를 위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로는 한국교회사 연구와 편찬에 나타난 사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관은 역사의 현실을 분별케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것이 없을 때 선행연구에 대한 사대(事大)와 추수(追隨)는 불가피해진다. 그것이 한국교회사의 한계였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관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한국교회사의 학맥을 짚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그동안 교회사학사에 관한 몇 편의 소론을 시도한 바 있으며,<sup>1)</sup> 영,미 등 주로 영어권을 중심으로 교회사와 역사신학에 관한 주요 논저에 나타난 교회사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sup>2)</sup> 한국교회사학사론은 이런 연구의 연장선에서 의도되었다. 이 글은 필자가 이미 1982년과 1985년에 썼던 한국교회사학사에 관한 두 편의 글<sup>3)</sup>을 기본 토대로 수정, 보완하였고, 1980년대 이후의 교회사 연구사를 첨가한 것임을 밝혀둔다.

## I. 한국교회사 연구와 편찬

### 1. 1920년대까지의 연구

해방 이전, 곧 일제하에서의 한국 천주교회가 주로 불란서 선교사들과 일본인 학자 등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처럼,<sup>4)</sup> 한국 개신교사 연구도 주로 미국인 선교사를 비롯한 외국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물론 해방 이전에도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학자들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1945년 이후에 와서 비로소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통감부시대(1905-1909)를 거쳐 1910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 일본이 식민통치한 기간 동안 한국인에 의한 주체적인 교회사 연구나 저술활동에는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점은 차학순의 지적처럼 다른 학문 분야에도 동일했다.<sup>5)</sup>

주한 혹은 내한 선교사들의 한국의 역사 현실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이라는 현실적 필요에서 한국교회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런 류의 저작들은 미흡하지만 한국교회사 연구라고 볼 수 있다. 1920년대까지 출판된 한국교회 혹은 한국교회사에 관한 기록으로는 언더우드(H. G. Underwood, 元杜于)의 *The Call of Korea* (1908), 게일(J. S. Gale, 奇一)의 *Korea in Transition* (1909), 침례교 계통의 선교사였던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의 *The Church of Christ in Corea* (1911), 영국교회의 트롤로프(Mark N. Trollope)의 *The Church of*

- 1) 이상규, "교회사연구와 편찬에 관한 사적 고찰", 『오병세박사화갑기념논문집,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개혁주의 신학협회, 1986), 275-292; "교회사 연구와 편찬에 관한 사적 고찰-종교개혁기와 계몽주의 시대(16-18C)를 중심으로", 『개혁신앙』16호(1993, 여름), 14-32; "교회사 연구와 편찬에 관한 사적 고찰-낭만주의 시대에서 이성주의 시대(18c-19c말)까지", 『석원태박사화갑기념논문총, 하나님께 영광을』(경향문화사, 1994), 227-253.
- 2) 이상규, "역사신학 연구의 최근 동향", 『고신신학』 창간호(고신대학교 고신신학연구회, 1999), 159-186; 이상규, "역사신학의 최근 동향", 『목회와 신학』115호(1999.1), 185-188.
- 3) 이상규, "한국기독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1874년에서 1945년까지", 『고신대학 논문집』10집(고신대학교, 1982), 185-200; "한국교회사 연구는 어디까지 왔는가? 1945년에서 1980년까지 한국개신교사연구를 중심으로", 『미스바』(고신대학교 총학생회, 1985), 48-63.

- 4) 한국천주교회사에 관한 최초의 논저는 프랑스 파리의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인 달레(Claude Charles Dallet, 1829-1878)에 의해 1874년 파리에서 출판된 『한국천주교회사』(Histoire de L' Eglise de Coree)인데, 그는 이 책에서 1593년 Gregorio de Cespedes의 내한에서부터 1871년 병인교난의 종결까지 약 280여 년간의 역사를 편찬했다. 그후 천주교회사 연구는 Gustav-Charles Mutel (閔德孝, 1880-1933) 등 프랑스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930년대 이후에는 山口正之, 楠田斧三郎, 浦川和三郎, 그리고 赤木仁兵衛 등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계속되었다. 한국천주교회사에 관한 초기 사료집으로는 정(正), 순(純), 현(憲) 3대에 걸친 천주교 박해에 관한 조아의 문서를 수집 편찬된 이기경(李基慶)의 『關衛編』이 있다. 비록 이 책이 천주학, 혹은 천주교에 대한 철저(斥邪)적 견지에서 편집된 자료집이지만 한국천주교회사에 관한 주요 문서로서 1931년 10월 출판되었다. 다른 한 권은 편자 불명의 사료집인 『邪學懲義』인데, 이것은 辛酉教難(1801) 당시의 형조(刑曹) 관계 문서를 편집한 것으로서 천주교도 신문일지인 『傳教奏啓』를 비롯한 11가지 공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문서가 해방 이후 비로소 연구되기 시작했다.
- 5) 차학순, 『서양사학이 수용과 발전』(나남, 1988), 43.

Corea (1915) 등이 있다. 이 책들은 사적인 기록으로서 부분적으로 한국교회사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개신교회의 역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라고는 볼 수 없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1909년 한국선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전도, 교육, 의료, 문서활동 등 선교 영역에 대한 회고적 기록인 *Quarto-Centennial Papers* (Seoul, 1909)를 출간했는데, 이것은 한국선교 25년사에 해당한다. 감리교 또한 1910년 한국선교 25주년을 기념하여 북장로교회와 유사한 형식의 *Korea Quarter Centennial Documents*를 출간한 바 있는데, 이것은 감리교의 한국선교 25년사에 해당한다. 이 문서들은 양 선교부의 공적인 한국선교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23년에 출판된 게일의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는 한국에서의 기독교운동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이다. 이 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근동에서의 기독교의 전래과정과 일본, 한국, 대만에서의 선교의 기원과 발전을 토착문화와의 관계에서 상호 비교하면서 기독교 선교운동의 역사적 추이를 논구한 책이다. 게일은 선교사로서의 활동 외에도 한국 문화와 역사, 언어 등 한국학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1926년에는 언더우드(H. H. Underwood, 元漢慶)의 *Modern Education in Korea* (NY: International Press)가, 1928년에는 피셔(J. E. Fisher, 皮時阿)의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가 각각 출간되었다. 양서는 한국에서의 선교교육의 문제를 취급한 저작인데, 원한경의 것은 뉴욕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씌어진 것으로서 개국 이후 한국에서의 교육의 발전을 취급하였다. 선교부의 활동만이 아니라 1910년 이후의 관립학교와 조선총독부의 교육기관과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원한경의 저서는 서구문화의 도관으로서의 기독교가 한국교육의 발전과 교육활동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감리교 선교사로서 연희전문학교 교육학 교수였던 피셔의 위의 책은 콜롬비아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씌어졌는데, 한국에서 일한 여러 선교부의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피셔의 저서는 한국 근대화과정이 곧 서구화과정이라는 전제에서 민주

주의의 과제를 선교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저술된 것으로서 그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선교교육사라고 할 수 있는데, 1920년대까지의 선교사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 두 권의 저작은 한국기독교회사에 대한 연구서라기보다는 개신교 선교와 관련된 교육활동과 제도 등에 관한 연구로 한국교회와 선교활동에 관한 부분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문서로는 각 교단의 총회록이나 사기의 출판물 들 수 있는데, 이를테면 곽안련(C. A. Clark) 편 「장로교회사전회집」(長老教會史典彙集, 서울, 1917)과 그가 영어로 쓴 「한국장로교회사 개요」(*Diges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Seoul, 1918)가 있고, 차재명(車載明) 편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상)」(서울, 1928년) 등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해방 이전에 발간된 한국교회에 관한 중요한 사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차재명(車載明)의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는 총3편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시대' (1865-1892), '공의회 시대' (1893-1906), 그리고 '독노회시대' (1907-1911)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1911년까지의 한국교회 역사 특히 교회 설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

이 시기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교회사 연구는 백낙준(白樂濬, 1895-1985)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한국개신교사」(*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Pyeng Yang, 1929)는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한국교회사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백낙준의 이 책은 원래 예일대학교에 제출된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서 1832년부터 1910년까지 개신교의 한국 선교와 전래과정을 기술한 책이다. 본서는 기독교의 전래, 수용과 발전, 그 원인과 과정을 체계화하여 개신교의 신앙, 사상, 정신의 전승과 심화,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이런 점에서 백낙준은 한국개신교사 연구의 개척자로 볼 수 있다. 본서는 후일 한국교회사 서술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해 주었다. 즉 한국교회사를 선교사적(宣敎史的)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민족교회사적(民族教會史的)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토론이 그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논의하고자 한다.

백낙준의 연구는 그 이후의 한국교회사 연구의 주된 교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기여와 영향을 과소평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영국 왕립 아세아학회 조선지부 이사, 영국왕립 사학회, 미국역사학회 회원이었으며 국제적 활동을 벌인 몇 안되는 역사가였으나 사학자로서보다는 교육 행정가로 일생을 살았다.<sup>6)</sup> 그가 「조선선교 50년사」(신동아, 1935), 「언더우드박사 소전」(1959) 등을 남기기는 했으나 그 이후 한국교회사 연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이 시기에 백낙준과는 다른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편찬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1928년에 나온 이능화(李能和)의 「조선기독교사급 외교사」(朝鮮基督教史及 外交史)였다. 이능화는 서학(천주교)과 예수교의 한국 전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외관계사를 정리했는데 이 책에서는 주로 국내자료에 의존하였다. 고 홍이섭(洪以燮)은 “이능화 선생의 「조선기독교사급 외교사」는 한국내에 있어 아직 방향없는 자리에서 한국측의 기본문헌의 모집, 정리에서 확실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길이 한국기독교사연구의 시점(始點)을 이룰 것이다”라고 평하지만 그의 연구는 교회사적 연구라기보다는 종교사적 관심에서 기독교사를 한국근래 외교사와의 관계에서 연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능화의 위 책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둘 수는 없다.

## 2. 1930년-1945년까지의 연구

1920년대까지의 한국개신교사에 관한 연구가 개신교의 한국 전래와 선교활동에 집중된 것이었다면,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선교 반세기에 대한

일종의 자기 반성으로서의 선교활동과 선교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시기에도 교회사 연구가 여전히 선교사 중심으로 전개되어 ‘선교사적 기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와서 역사 연구가 보다 분석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단순히 기독교의 전래과정이나 그 관련 역사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역사와 신학, 수용과 성장, 선교와 그 정책들에 대해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이 시기의 발전이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수용은 아아(亞阿)제국의 다른 나라들과는 비견될 수 없는 급속한 것이었으므로, 한국에서의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는 그 시대적 요청이었다. 이 요청에 부응하여 한국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수용을 다룬 연구가 1930년에 출판된 쿠퍼(Sallie Kate Cooper, 巨布計)의 *Evangelism in Korea* 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의 역사적 개관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기독교 복음이 한국이라는 토착문화 속에 어떻게 것처럼 신속하게 수용되었는가를 논구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32년에 발간된 솔타우(Stanley T. Soltau, 蘇悅道)의 *Korea: The Hermit Nation and its Response to Christianity* (London, New York & Toronto)는 1931년까지의 한국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의 수용과 그 전개과정을 다룬 것으로써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였다. 1934년에 간행된 왓슨(Alfred W. Wasson, 王永德)의 *Church Growth in Korea* (New York) 또한 기독교의 수용과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성장에 대한 연구로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치적 및 사회적 조건에 따라 10년이라는 주기를 두고 빨리 혹은 천천히 성장한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즉 그는 한국에서의 교회성장의 지역적 편차를 제시함으로써 교회성장에서 사회적 환경을 경시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네비우스 정책이 한국교회 급성장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는데 이 점은 곽안련 등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 시기 곽안련(郭安連)이란 한국이름으로 더 익숙한 클라크(Charles Allen Clark)의 연구는 돋보인다. 1937년에 그는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위한 네비우스정책」(*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n Korea*)을 출판했는

6) 백낙준은 1927년 9월부터 연희전문학교에 재직했는데, 성경과 서양사를 강의하였고, 특히 그리스와 로마, 르네상스와 프랑스혁명에 중점을 두어 강의했다. 그의 서양사에 관한 논문은 6.25동란때 거의 산실되고 “워털루 戰役”(1932), “이태리 건국과 맷지니”(1933), “워싱턴과 미국의 건국”(1933), “비스마르크의 독일제국 건설”(1933), “캄배타의 불란서 제3공화국 건설”(1934), “체코의 국부 마사릭 박사”(1935) 등이 남아 있으나 학술 논문이라기보다는 계몽적 성격의 글로 추정된다(차하순, 앞의 책, 45).

데,<sup>7)</sup> 이 책은 1928년 “The Nationa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s a Test of the Validity of the Nevius Principles of Missionary Method”란 제목으로 시카고대학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개작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의 네비우스정책의 수용과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문제를 취급했는데, 궤안론은 한국교회 성장에 있어서의 네비우스정책의 결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네비우스정책은 단순히 자립성에 대한 강조뿐만이 아니라 성경연구에 대한 강조, 곧 성경에 대한 압도적인 강조를 통한 성경중심주의였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한국교회에서의 네비우스정책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개신교의 성장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34년은 미국의 장, 감 양선교부의 한국선교 50주년이 되는 해였으므로 이 때를 전후하여 한국선교 50년을 정리하는 교과 단위의 선교사 혹은 교회사 편찬이 이 시기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 북장로교의 한국선교 50년의 역사를 정리한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1884-1934* (Seoul, 1934)이다. 로드스(Harry A. Rhodes, 盧解理)가 편집한 이 책은 미국 북장로교의 한국선교의 시작에서부터 선교지부의 개설과 각 선교지부별 역사와 활동, 그리고 선교부의 연합사업 등을 한국교회사와 관련하여 편찬하였다. 이 책은 북장로교회의 한국선교 50년의 역사와 인명, 내한 선교사 명부, 연대표, 각종 통계를 포함한 약 700면에 달하는 방대한 책으로 꾸며졌다. 이 책은 백낙준의 연구와 함께 북장로교회의 한국선교사에 대한 귀중한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로드스는 「기독교신보」(基督申報) 1933년 1월 4일에서부터 5월 30일자까지 연재했던 “조선기독교회 역사”를 편집하여 1933년 「조선기독교회 역사」를 출판하기도 했다.

감리교의 양주삼(梁柱三) 목사는 1896년 시작한 남감리회의 한국선교의 역사를 편찬했는데,<sup>8)</sup> 이 책은 일종의 선교지(宣敎誌)로서 연대기적 개요와

내외 신자의 사진, 이력서 등을 편집한 사료집이라 볼 수 있다. 또 감리교 여자 해외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는 한국선교 50주년을 기념하여 *Fifty Years of Light* (Seoul, 1938)를 출간하였다.

성결교회사에 관한 것으로는 이명직(李明植)의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약사」(朝鮮儂蘇教 東洋宣教會 聖潔教會略史, 서울, 1929)가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처럼 1930년대는 각 교과별 교회사 혹은 선교사 편찬이 이루어진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장로교 총회에 의해 「조선 예수교 장로회 50주년 화보」, 정인과(鄭仁果)의 「조선 예수교 장로회 50년사 일별」, 장정심(張貞心)의 「조선 기독교 오십년사화」가 이 해에 발간되었다. 이런 류의 글들은 한국선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 3. 1945년에서 1960년대까지의 연구

1945년 해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에 의한 주체적인 학문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다. 한국교회사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해방 이전까지 한국교회사 연구는 주로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지만 해방 이후에는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런 점에서 고 홍의섭 박사는 1945년 정치적 해방이 한국교회사학사(韓國教會史學史)의 사적(史的) 분기점이 된다고 보았다.<sup>9)</sup>

그 분기점이 되는 첫 작품이 김양선(金良善, 1907-1971)의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56)이다. 이 책은 해방 후 한국교회사에 관한 첫 저작으로서 해방 이후 10년간의 한국교회의 문제들, 곧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에서의 교회 재건 운동, 수난과 부흥, 그리고 해방 이후 혼란했던 분열과 대립, 교회분열, 신학적 대립과 논쟁 등을 취급하였다. 저자는 자서(自序)에서 해방과 재건, 수난과 부흥, 영도권 문제와 교파의 분립, 한국 신

7) 이 책은 박용규, 김춘섭 저, 「한국교회와 네비우스선교정책」(대한기독교서회, 1994)이란 제목으로 역간되었다.

8) 「한국에서의 남감리회 30년」, *Southern Methodism in Korea, Thirtieth Anniversary*, Seoul, 1930.

9) 홍의섭, 「한국사의 방법」(탐구당, 1970), 409.

학 수립의 태동이라는 중요한 4가지 주제 아래서 “고난과 구원, 대립과 화해라는 사관의 테두리 안에서” 해방 후 10년의 역사를 서술했다고 했다.<sup>10)</sup> 그러나 그가 말하는 사관이 딱히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서양교회사학사 전통에서 볼 때도 그런 류의 사관의 범주를 찾을 수 없다. 그가 말하는 “고난과 구원, 대립과 화해라는 사관”이 그의 역사를 엮어가는 일관된 사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가 말하는 사관이란 사실은 해방 전후의 한국교회사를 보는 그의 강조점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선은 당대의 교회사를 취급하면서도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다수의 원 사료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해방 전후사 인식의 교본으로 활용되었다. 이 책과 함께 김양선이 작고한 후 그의 조카 김광수에 의해 편집, 출간된 「한국 기독교사 연구」(기독교문사, 1971)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한 논문을 편집한 것이지만 통사적 성격이 있어 한국교회사 연구의 교과서로 애용되었다.

그는 교회사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근대사 전반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국 실학사(實學史)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의 한국고지도(韓國古地圖)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는 고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1967년 경교의 나대전래설(羅代傳來說)을 주장하여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는 교회사 연구와 저술만이 아니라 사료의 수집에도 열정을 쏟았다.<sup>11)</sup>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김양선의 공헌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김양선의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가 출판된 시기를 전후하여 외국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저술된 것인데, 이 시기에 와서 한국교회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을 반영해 준다.<sup>12)</sup> 이 시기에 나온 한국교회사에 관한 연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한국교회(특히 장로교회)의 분열과 일치를 다룬 것, 둘째는 한국교회의 어느 특정 시기나, 기존의 이론을 재해석하거나 다른 학설을 제시한 것, 셋째로는 일제하의 문제 곧 신도주의(Shintoism)와 기독교와의 문제를 취급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첫번째 경우, 즉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과 일치를 다룬 논문으로는 전성천(全聖天)의 “한국개신교의 분열과 연합”(Schism and Unity in the Protestant Churches of Korea, 1955)과 노봉린의 “한국장로교에 있어서 분열과 재연합”(Division and Reunion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958-1968, 1968)이 대표적 경우라 할 수 있다. 예일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작성된 전성천의 연구는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회 일치를 위한 시도의 역사적 추이를 한국교회사의 배경에서 추적한 글이다. 또 칸콜디아신학교에 제출한 노봉린의 연구는 전성천과 동일한 주제를 취급했으나 연구 범위가 1960년대까지 확대되었고, 1959년 이전과 이후의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을 취급하였다. 전성천의 경우 한국교회의 분열을 주로 신학적 측면에서 논구한 반면, 노봉린은 분열의 원인을 내인과 외인으로 구분하고, 신학외적인 다양한 요인들(non-theological factors)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의 부인과 막내딸이 1947년 4월 1일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다가 함께 목숨을 잃은 일은 기독교 박물관 설립을 위한 뼈아픈 희생이었다. 부인과 딸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일한 결과로 한국 기독교 박물관과 매산고고관(梅山考古館)이 1948년 4월 20일 남산에서 개관되었다. 그후 6.25동란과 혼란으로 한국 기독교박물관은 철수되어 수년간 그의 사저에서 보관되다가, 1967년 10월 10일 숭선대학교에 기증, 다시 개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 유동식은 그의 “한국종교 연구의 경향- 외국에서의 박사논문을 중심으로”(「기독교사상」, 1972. 11; 82-88)에서 1927년에서 1972년까지 근 50년 동안 한국종교에 대한 외국에서의 박사학위 논문이 43편에 지나지 않는데, 그중 기독교 관계 논문이 절대다수이며, 이중에서도 한국교회사 분야가 전체 논문의 32%인 14편에 달했고, 이중 장로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취급한 것이 3편이라고 분석했다.

10)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34-35. 이 책은 판안련(Allen D. Clark)에 의해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in the Ten Years Since Liberation, 1945-1955* 이란 제목으로 영역되었다.

11) 1907년 2월 13일 평북 의주군 비현면(批峴面) 당후동(堂後洞)에서 김관근(金灌根) 목사의 3남으로 태어난 김양선은 한국 최초의 신자이자 수세자였던 백홍준(白鴻俊)의 외손자로서 한국교회사 연구를 위한 이상을 키워 나가기에 적절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그는 부친이 설립한 중원(重遠)학교, 신성(信聖)중학교를 거쳐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신학교를 거쳐 목사가 되었다. 그는 숭실대학 재학중에 배민수(裴敏洙), 문학인(文學麟) 등과 청구회(靑丘會)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평양에서 반일 학생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일로 1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루었고, 1938년에는 신사참배 반대로 수감되는 등 3차례나 투옥된 일도 있다. 그가 숭실대학 재학중이던 1933년 ‘한국 선교 50주년 기념 사료 전시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는데, 이것은 그의 사료수집 활동이 얼마나 일찍부터 있었단가를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기독교 박물관 설립은 귀중한 업적이었다. 1945년 11월 미 군정장관으로부터 남산 조선신궁(朝鮮神宮) 자리에 기독교 박물관 설립허가를 얻고, 신구교가 함께 참여하는 박물관 설립 위원회를 조직하고, 총무 겸 박물관장에 취임하여 기독교 박물관 설립 작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북한 각지에 흩어 숨겨 두었던 사료를 운반하기 위해

이 시기에 나온 두번째 부류의 연구로 주목할 만한 저작은 1959년 미국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쓰여진 정대위(鄭大爲)의 “한국사회에서의 종교혼합현상”(Religious Syncretism in Korean Socie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초기 한국교회의 형성, 기독교의 수용과정과 성장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화가 조우하는 ‘역사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관계들, 예컨대, 대치(confrontation), 적응(correspondence), 채택(accommodation), 혼성(hybrid), 동화(acculturation), 혼합(syncretism), 합일화(identification), 융합(harmony), 일치(convergence) 등 문화현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여, 한국 민속신앙과 외래 종교들과의 접촉을 비교 관찰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수용과 성장을 종교 혼합현상(Syncretic phenomena of religion)으로 설명하였다.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정대위는 한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운명적인 접촉을 가질 때,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화적 교류는 우위의 문화로부터 열위의 것에서의 일방적 교류가 아니라 상호교류(Both-way traffic)라는 문화 현상학에서 볼 때, 두 개의 문화가 교류를 갖고 종교적인 조우가 이루어졌다면 종교혼합 현상이나 종교혼합의 가능성 혹은 필연성은 문화교류의 메카니즘 속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특정한 문화의 변경(문화권)을 넘는 세계 종교들은 그것이 들어가 있는 문화마다에 그 본유한 문화의 제약 아래서 만들어진 각이한 유형의 교회와 신학을 형성하는 것은 좋은 시사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한국 교회의 특수한 성장을 영국인 헨리 벤(Henry Venn)이나 미국인 앤더슨(R. Anderson)의 견해를 추수하는 네비우스(John Nevius)의 이른바 「네비우스정책」(Nevius method)의 성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네비우스 출생 이전에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의 기적적인 성장이나, 네비우스정책이 실패한 다음 시대의 개신교의 발전상도 만족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대위는 네비우스정책은 일종의 우민정책(愚民政策)으로서, 그것이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의 원인으로 볼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급속한 수용과 성공을 종교혼합 현상의 결과로 설명하

고, 동아시아에서 편만했던 소위 함삼위일(函三爲一)의 원리를 추수했다. 그는 네비우스 정책도 피선교 지역의 수용자 자신이 본유(本有)한 것을 이끌어 내어 외래적인 것에 혼합시키는데 이바지했고, 결국 종교혼합 현상을 가능케 하고 이를 촉진시킨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한국에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재래 종교 가운데 기독교적 교리와 흡사한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폭발을 가능케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과정은 변혁이 아니고 조정과 동화였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3)</sup> 한국의 재래종교 간의 혼합현상에 대해서는 게일<sup>14)</sup>이나 언더우드<sup>15)</sup>도 지적한 바 있고, 독일의 피터 바이엘하우스(Peter Beyerhaus)는 “한국의 종교는 혼합주의적이다”(Die Religion Koreas ist Synkretisch)라고 단언하기도 했지만,<sup>16)</sup>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성장을 한국의 기층종교인 무교와의 혼합현상으로 설명한 것은 전혀 새로운 인식이었다.

이런 그의 입장은 성령의 내적 사역을 부인하고, 문화현상의 다원성이라는 전제하에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독교의 상대화를 전제했던 18세기 종교사학과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입장은 한국교회의 순수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이 시기의 한국교회사 연구의 세번째 부류는 일제하의 문제, 곧 일본에서의 신도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취급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근삼(李根三)의 “신도 국가주의와 기독교의 대결”(The Christian Confrontation with Shinto Nationalism; a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of the Conflict of Christianity and Shinto in Japan in the Period Between the Meiji Restoration and the End of World War II (1868-1945)<sup>17)</sup> 과 김의환(金義煥)의 “일제하에서 한국기독교”(The Korean Church under Japanese Occu-

13) David Chung, *Religious Syncretism in Korean Society* (PhD. Thesis, Yale Univ., 1959), 200.

14) J. S. Gale, *Korea in Transition* (NY: 1909), 70ff.

15) H. G.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NY, 1910), 94.

16) Peter Beyerhaus, *Die Selbständigkeit der Junger Kirchen als Missionarisches* (Barmen, 1956), 216.

17) 이 논문은 같은 제목으로 1966년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에 의해 출판되었다.



p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sistance Movement within Presbyterianism), 그리고 강위조(姜渭祖)의 “한국에서의 일제의 통치와 종교”(The Japanese Government and Religion in Korea, 1910~1945)를 들 수 있다.

이근삼의 연구는 화란 자유대학교에 제출된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써 전적으로 한국교회사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루스드니(Rousas J. Rushdoony)의 평과 같이 “신도 역사와 기독교와의 대결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역사적 분석”이다.<sup>18)</sup> 일본의 신도주의에 대한 이근삼, 김의환의 연구는 1925년 이후 한국교회 현실에 실재했고, 또 강요되었던 신사참배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그후의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遠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 역시 시카고대학에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된 강위조의 글은 신도(神道)와 신사참배 문제,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종교정책과 한국교회 분열에 대한 종교학적 연구이지만 앞의 두 편의 연구와 함께 한국에서의 신도주의와 교회의 대응을 보다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보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는 한국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전에 없던 노력을 보인 시기였다. 특히 외국인의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는 돋보였다. 특히 제2대 선교사인 알렌 클라크(Allen D. Clark, 郭安全)는 1961년 영문판 「한국교회사」(*History of Korean Church*) 출판했는데, 1966년에는 「한국교회사」라는 이름으로 역간되었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백낙준의 「한국개신교사」에 의존하고, 그것을 간명하게 재구성했다. 1961년 초판을 냈던 저자는 1971년 판에서는 대폭 수정하고, 1960-1970년대 분은 그간 한국에서 생산된 관계 논저들을 섭렵한 흔적이 뚜렷하지만 사료 검증이나 비판이 없고, 원전에 대한 각주(脚註) 명기(明記)에 소홀하여 사실성에 의문을 남고 있다. 꺾안전은 그의 교회사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교회의 교육, 의료사업, 선교회와의 관계, 민족 사회에 미친 기독교의 횡적 관계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내적 발전, 한국교회의 신앙형태의 구성, 신앙고백

과 신학의 발전 등과 같은 내면적 측면이 경시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정신사적 흐름보다는 교회의 외적 성장과 그 추이에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를 보는 외국인의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곧 성경과 성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초대 한국교회가 성례의 시행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하여 교회론이 약화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한 것은 특기할 일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교회사에 대한 최초의 통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변종호(邊宗浩)가 1959년 「한국기독교사(개요)」라는 당시까지의 한국교회 역사를 다룬 통사적 성격의 책을 출판했으나 연대기적 나열에 가깝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내적 혹은 정신사적 역사에 대한 기술학적(descriptive) 저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통사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 외에도 이 시기의 외국인의 연구로는 팔머(Spencer J. Palmer)의 「한국과 기독교」(*Korea and Christianity, Hollyim*, 1967), 브라운(George T. Brown)의 *Mission to Korea* (PCUS, 1962), 스톱스(Charles D. Stokes, 都益瑞)의 *History of Methodist Missions in Korea, 1885-1930*, (1964), 쉬어러(Roy E. Shearer)의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1966), 하비 콘(Harvie M. Conn)의 “한국장로교신학에 관한 연구”(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966-68) 등이 있다.

물론 선교사였던 팔머는 위의 책에서 시종일관 ‘한국 교회는 왜 성장했는가’ 하는 질문을 제시하면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이 의문을 해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그는 한국 선교초기부터 한국의 고유문화(tradition)에 어떻게 적응해 갔는가를 중국에서의 경우와 비교하며 규명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수용을 전통적인 재래문화와 기독교와의 동일화로 보고 있어 그 접근 방법은 정대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브라운의 책은 원래 학위논문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미국 남장로교회의 한국선교사를 정리한 글이며,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톱스의 글은 제목이 암시하듯 한국에서의 감리교 선교사를 취급한 책인데, 1947년 예일대학교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쉬어러의 글 역시 박사학위 청구논

18) Kun Sam Lee, 위의 책, v.

문으로서 한국교회 성장의 문제를 취급하였다.<sup>19)</sup> 그는 한국교회 성장을 요원지화(燎原之火, wildfire)라고 부르고 한국교회 성장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성장이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들어 교회성장에 있어서의 사회,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아아(亞阿) 제국과는 달리 한국에서 이루어진 교회성장은 “한국인들이 점증하는 일본의 지배하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독교 교리의 어떤 측면이 한국인들에게 호소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시 한국인의 필요를 기독교가 채워 주었고, 또 한국인들의 사마니즘적 전통의 어떤 측면과 잘 맞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정통장로교(OPC) 선교사였던 간하베(Harvie M. Conn)의 글이다.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가 발간하는 신학지에 연재했던 “한국장로교 신학에 관한 연구”(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라는 논문<sup>20)</sup>은 기독교의 한국 전래 이후 1954년까지의 한국교회 신학사를 최초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 글에서 1938년까지의 한국교회에서의 보수주의 신학, 1945년까지의 자유주의 신학, 1945년 해방으로부터 1949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대립과 무질서, 1945년부터 1954년까지에 이르는 대립과 교회분열 등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시종일관 신학적 관점, 곧 보수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의 논쟁과 대립의 관계에서 파악하였다. 해방 이후 혼란과 교회 분열에 이르는 과정을 신학사적으로 정리한 점은 한국교회 신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의 한국교회사 연구와 더불어 이 시기에 있었던 토론은 기독교 선교와 토착화론(土着化論)에 관한 것이었다.<sup>21)</sup> 이 때는 선교사들의 내한과 선교활동이 시작된지 80여년이 지난 때였으므로 한국의 재래 종교와 기층문화에 대한 관심은 복음 해석사의 당연한 관심이었다. 이 토론은 그간의 한국기독교 선교와 신학에 대한 일종의 반성과 평가로서, ‘한국에서의 신학’(Theology in Korean church)이 아니라 ‘한국적 신학’(Korean theology)의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신학사적 의의를 함의한다. 이 때의 논의는 한국 고고문화와 재래 종교와의 관계에서 기독교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는데, 논쟁의 첫 계기가 된 것은 윤성범의 단군신화(檀君神話)에 대한 신학적, 유형학적 해석의 시도였다. 1960년대의 토착화 논쟁은 철학적으로는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틀에서 윤성범(尹聖範), 유동식(柳東植), 김광식(金光植), 변선환(邊鮮煥) 등 교파적으로는 감리교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볼트만 학파들이 그 중심인물이었다. 물론 박봉량(朴鳳琅), 전경연(全景淵), 이장식(李章植) 등 장로교 학자들도 없지 않았다. 일련의 논쟁의 토론의 첫 논자는 당시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로 있던 유동식이었다. 그는 “복음의 토착화와 한국에서의 선교적 과제”<sup>22)</sup>라는 논문에서 한국인의 주체적인 복음 이해

21) 토착화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1960년대에 시작되지만 이보다 앞서 토착적 신학, 혹은 신학적 토착화를 추구한 인물은 감리교의 최병헌(崔炳憲, 1858-1927)과 정경옥(鄭景玉, 1903-1945)이었다. 이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유교나 불교와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안고 씨름하였으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복음과의 창조적인 만남의 문제를 안고 고심하였다. 특히 유학자 출신인 최병헌은 마치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가 그러했던 것처럼 유교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모든 종교는 신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의 문화현상으로 파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종교의 도달점이며 완성점이라고 하는 소위 ‘성취설’을 말하기도 했다. 1911년에 출판된 「성산명경」(聖山明鏡), 1922년에 출판된 「한철집요」(漢哲輯要), 「만종일련」(萬宗一聯)에서 그는 타종교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취급하고 한국의 전통사상 위에서 기독교를 해석하였는데,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적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체험 속에 나타난 토착화된 기독교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한국에서의 토착화 신학의 선구자이며 종교다원주의의 선구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22) 「감신학보」, 제14호(1962, 10), 43-58. 유동식은 복음의 사건이 유대인의 고유한 민족문화 속에 적용하여 유대적 개념과 표현 속에 토착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고 지적하고 토착화는 초월적인 진리가 일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 적용하도록 자기를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복음 자체와 비본질적인 부대형식(附帶形式)을 구분해야 한다고 봄으로써 복음과 역사적 기독교는 다른 두 가지 실체라고 한다. 복음이 기독교의 씨이며 본질이라면, 역사적 기독교는 서양문화라는 토양에서 자라서 꽃을 피운 식물과 같다고 보았다. 한국에 소개된 기독교는 바로 이 서양문화의 형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동식은 볼트만의 비신화화(非神話化) 사상을 토착화론에 원용하여 토착화를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성질을 규명하고, 기독교로부터 서양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유동식은 복음의 본질 규명과 함께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한국적 신학 수립을 위한 복음의 한국적 표현을 복음의 토착화와 한국에서의 선교적 과제로 보았다.

19) 한국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문헌이 있다(발간연대순).

Charles A. Clark,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New York: Revell, 1930); Alfred W. Wasson, *Church Growth in Korea* (New York: IMC, 1934); Gabriel Gab Soo Lee, *Sociology of Conversion: Sociological Implications of Religious Conversion to Christianity in Korea*(Ph. D. Thesis, Fordham University, 1961); Roy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Grand Rapids: Eerdmans, 1966). 이 책은 1966년 이승익에 의해 「한국교회성장사」란 이름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 의해 역간되었다; Bong-Rin Ro and Martin L. Nelson ed., *Korean Church Growth Explosion* (Seoul: Word of Life Press, 1983). 그 외에도 김중기, 「한국교회의 성장과정」, 「현대사회」(1983, 봄); 한국기독교사학회연구원 편,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한영제 편, 「한국기독교성장 100년」(기독교문사, 1986); 신내리(손정은 역), 「한국교회성장의 비결」(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등이 있다.

20)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Part I (Vol. xxix No 1, Nov. 1966), Part II (Vol. xxix No 2, May, 1967), Part III (Vol. xxx No 1, Nov. 1967), Part IV (Vol. xxx No 2, May, 1968).

와 '생동적인 선교를 위한' 선교적인 동기에서 토착화를 제창했는데, 전경연 교수가 「신세계」(新世界)에 “기독교 문화는 토착화할 수 있는가?”<sup>23)</sup> 라는 글로 논박함으로써 1963년도의 토착화 논쟁이 시작되었다. 참고로 이 때의 토론이 나 관련 논의를 논쟁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61. 12. 「기독교사상」, 장병일, “단군신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 1962. 10. 「감신학보」, 14호, 유동식, “복음의 토착화와 한국에서의 선교적 과제”
- 1963. 3. 「신세계」, 전경연, “기독교문화는 토착화할 수 있는가?”
- 1963. 4. 「기독교사상」, 유동식, “기독교의 토착화에 대한 이해”
- 1963. 5. 「기독교사상」, 전경연, “기독교 역사를 무시한 토착화 이론은 원시화를 의미”
- 1963. 6. 「기독교사상」, 이장식, “그리스도교 토착화는 역사적 과업”
- 1963. 5. 「사상계」, 윤성범, “환인, 환웅, 환검은 곧 ‘하나님’ 이다”
- 1963. 6. 「기독교 사상」, 윤성범, “복음의 토착화에 대한 전 이해”  
이장식, “그리스도교 토착화는 역사적 과업”
- 1963. 7. 「사상계」, 박봉량, “기독교 토착화와 단군신화 - 윤성범 교수의 소론과  
관련하여, 삼위일체적 해석의 신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정하은, “한국에 있어서 신학의 토착화의 기점”  
한태동, “사교의 유형과 토착문제”
- 1963. 8/9 「기독교사상」, 전경연, “소위 전이해와 단군신화”  
홍현설, “토착화의 가능면과 불가능면”
- 1963. 9. 「사상계」, 윤성범, “하나님의 개념의 세계사적 성격”

23) 「신세계」, 1963. 3월호. 전경연은 유동식의 토착화론은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을 민족문화 속에 혼용 혹은 상실시키는 혼합주의적 시도라고 반박하였다. 즉 기독교 신앙은 일개 문화현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었음을 지적하고 기독교 자체는 기독교적 문화와는 다른 실체이며, 문화의 동기는 신앙고백의 동기와는 다르다고 하여 그리스도교 신앙과 문화현상과의 관계에 대해 바르트의 불연속성의 입장을 취했다. 즉 전경연은 기독교는 문화와 분리될 수는 없지만 문화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과 신앙고백에 의존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바로 이 때문에 기독교는 문화전통이 다른 지역에 전파될 때 박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민족전통은 자기부정을 겪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시 삶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럴 경우 기독교의 토착화란 민족주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넘새만 피우는 데 불과하며, 기독교는 민족주의에 봉사할 뿐이라고 말한다. 전경연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표현은 서구적이거나, 한국적이거나 혹은 게르만적이거나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느냐의 입장이었다. 전경연은 민족주체가 신학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재래의 신앙형태나 민족 전통 등이 복음에 의해 새로운 성격형성(性格形成)을 이루어야지, 복음이 재래의 신앙형태나 민족 전통에 의해 재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1963. 10. 「기독교사상」, 윤성범, “단군신화는 'Vestigium Trinitatis' 이다.”

「기독교사상」, 이규호, “토착화론의 철학적 근거”

1963. 10. 「사상계」, 박봉량, “성서는 기독교 계시의 유일한 소스 - 윤성범 박사의  
대답에 답함”

1963. 11. 「기독교사상」, 이종성, “기독교 토착화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같은 논쟁의 와중에서 한국적(韓國的) 신학 형성을 위해서는 서방 기독교 전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보는 윤성범의 「기독교와 한국사상」이란 문제 많은 저서가 출판되었다.<sup>24)</sup> 그는 또 당시의 대표적인 종합월간지였던 「사상계」(1963. 5)에 “환인(桓因) 환웅(桓熊), 환검(桓儉)은 곧 ‘하나님’ 이다” 라는 글을 발표하여 삼위일체론의 3위격 개념을 단군신화의 환인, 환웅, 환검이라는 신화적 틀에 접합시켰고, 유교의 성(誠)이 말씀의 성육신을 의미한다고 하여 성 개념을 성육신 개념과 합일시켰고, 유교의 효(孝) 개념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비어(analogia)라고 하여 효 개념을 기독교론에 결합시켰다. 박봉량은 “기독교 토착화와 단군신화 - 윤성범 교수의 소론과 관련하여, 삼위일체 해석의 신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반론<sup>25)</sup> 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관은 단군신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민족문화나 전통 혹은 신화는 기독교 계시와는 아무런 연속성이 없으며,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토론은 「기독교사상」으로 옮겨져 계속되었다.

윤성범은 단군신화 속에 나타난 복음의 전이해(前理解, Vorverständnis)를 발견해 보려는 시도였다고 하지만, 박봉량의 지적처럼 단군신화와 삼위일체 신의 유추는 신학의 기본 원칙을 범한 것이며, 단군신화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vestigium)을 찾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또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관과 한국의 단군신화는 “고양이와 돌맹이의 유사성조차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며, 윤성범의 주장은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가설일 뿐이라는 전경연의 비판은 지나치지 않다. 이 토론은 윤성범과 박봉량, 전경

24) 대한기독교서회, 1964.

25) 「사상계」, 1963. 7.

연의 토론으로 한정되지는 않았고, 이들 외에도 김정준(金正俊), 이규호(李奎浩), 이장식(李章植), 이종성(李鐘聲), 장일조(張日祚), 정하은(鄭賀恩), 한태동(韓泰東), 한철하(韓哲河), 홍현설(洪顯尙) 등 여러 학자들이 토론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이 토론은 1960년대 한국 신학계의 커다란 주제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가담했던 유동식마저도 이 때의 토착화 논쟁은 그리 생산적이지 못했다<sup>26)</sup>고 자평했을 만큼 진지한 토론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고, 한국신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기회로 만들어 가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윤성범에게 있어서 계시신학과 신화 사이에 경계선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단군신화와 삼위일체론, 유교사상과 기독교적 개념들을 역사나 신학적 맥락과 상관없이 오직 관념적으로 종합하려 했던 말하자면 주관적 내감(內感)에 기초한 시도였기 때문에 그 토론은 접경(接境)의 싸움에 불과했다. 결국 윤성범의 시도는 지적 유희에 불과했다. 이 때의 토론은 단군신화에 대한 해석이 토착화 인양 오도하였고, 토착화에 대한 정당한 관심과 연구를 소멸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960년대를 거처가면서 토착화를 말하는 민족주의적 기독교운동은 복음주의적인 흐름과 대조를 이루며 한국교회의 신학적 학맥을 형성해 갔다.

#### 4. 1970년대

1970년대는 한국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다. 이전의 어떤 시기보다 더욱 활발한 연구가 있었고 주목할 만한 논저가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해방 이후 25년이 경과하는 동안의 계속된 연구가 기초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 이전까지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방법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제대로 된 통사(通史)가 출간되었고, 한국교회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저작은 김양선의 「韓國基督教史 研究」, 민경배의 「韓國基督教會史」, 이영현의 「韓國基督教史」

등이다. 특히 민경배는 이 책의 저술과 함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사 연구의 중심에 서게 된다.

1971년에 출판된 김양선의 「한국기독교사연구」(韓國基督教史研究)는 “개신교 전래의 초기역사와 선교상황”, “1907년을 전후한 대부흥운동”, “행정기구(치리회)의 확립과 교회의 발전”, “삼일운동과 민족교회로서의 성장”, “신사참배 강요와 탄압” 등의 주제들에 대한 독립된 논문을 수록한 책인데, 전항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저술은 민경배(閔庚培)의 「韓國基督教會史」(대한기독교서회, 1972)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가 1968년에 출판했던 문고판 「한국의 기독교회사」를 중심으로 대폭 증보하고 재구성하여 전3편 21장의 통사로 발전시켰는데,<sup>27)</sup> 그 동안 이 책이 한국교회사에 관한 표준적인 교과서로 인식될 만큼 애용되었던 점에서 이 책의 가치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사는 물론 예외적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평이한 사건의 나열이나 사료집 혹은 하기오그라피(hagiography)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민경배는 이런 한국교회 현실에서 국내외 사료를 섭렵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교회에 대한 통시적 안목을 가지고 한국교회사를 집필했다. 이 책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이 책이 민족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책의 부제를 “한국민족교회 형성과정사”라고 명명하고 ‘선교의 역사’가 아닌 ‘민족교회사’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고 하였다. 민족의 문제는 그의 역사기술과 편찬의 주된 동기가 규범이 되고 있다. 이런 그의 입장은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교회와 민족」(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일제하의 한국기독교민족·신앙운동사」(대한기독교서회, 1991) 등과 같은 그 이후의 논저들에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민족에 취한 역사가’(Minjok-intoxicated historian)라고 할 수 있다. 민경배는 선교사적(宣敎史的) 교회사는 선교사(宣敎師)를 파견한 나라의 연장으로서 그 성장을 추적하는

26)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전망사, 1982), 222.

27) 민경배는 1974년에는 이 책의 증보판을, 1982년에는 개정판을, 1993년에는 640면에 달하는 신 개정판을 연세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출판하였다.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한국교회를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서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한 '대상'에 그쳤던 선교사를 탈피하고 '주체'로서의 민족교회를 쓰고자 하였다.<sup>28)</sup>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민족교회'가 무엇이며 또 민족교회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 항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의 교회관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론에서 저자는 자신의 사관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나 혹은 양떼, 권속, 집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은 다 기독교의 단체성이나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압도적인 종교적 감정이나 심오한 고독의 경건이 교회 밖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경건이나 정통(正統)에 앞서서 그 유일하고도 단일한 하나의 공동체적 연결을 기본적인 표로 본다는 말이 된다. 교회를 나누어 나갈 정도의 진리의 보수나 실천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통일은 정통에 선행(先行)한다는 것이다. 정통수호의 명분 아래서 진행되는 교회의 분열이나 강단의 아비규환은 벌써 그 명분부터 비극적이며, 더구나 비성서적(非聖書的)이다.<sup>29)</sup>

여기서 민경배의 교회관, 그리고 교회사관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순결보다는 연합을, 진리보다는 통일을, 교회의 거룩성보다는 화해를 중시하고 있고,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선행하는 가치임을 말하고 있다. 그에게는 키퍼리아누스적인 교회의 통일성과 가전적 일체성으로서의 중세적 교회관의 재현을 보는 듯하다. "단일한 하나의 공동체적 연결"이 그토록 우선시되어야 하고 교회의 통일이 교리적 순결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면 16세기의 프로테스탄티즘은 명분 없는 분열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그의 역사관 때문에 그는 해방후의 친일청산을 통한 그 줄기찬 교회쇄신 운동을 냉소적으로 보고, "한국교회 해방 이후의 신앙은 은총의 신비를 근본적으로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

다.<sup>30)</sup> 민경배는 '연합'을 규범적 원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분열에 대한 기술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 이것은 연합을 규범적인 원리로 보는 그의 견해 때문에 해방후의 한국 장로교회의 대립과 분열의 원인, 역사, 과정을 주의 깊게 고찰하지 않는 결과로 판단된다. 일례로 그가 고려파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 장로교회는 1951년 5월 24일 속개된 총회(36회 계속)에서 고려신학교파를 정죄했으며, 이에 따라 고려파는 출옥성도를 중심으로 '경남법통노회'를 조직하고 깨끗이 갈라져 나갔다"고 말하고 있으나, 고려신학교 인사들이 이때 별도의 노회를 조직한 일이 없으며 교회를 갈라 나가지 않았다. 기존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남노회를 조직한 것은 김길창(金吉昌) 등 친일적 교권주의적 인사들이었고, 총회는 부당하게 불법 노회를 인정했을 뿐이다. 그래서 고려신학교를 중심한 인사들은 기존의 '경남노회'를 김길창이 임의로 조직한 노회와 구별하기 위해 '경남법통노회'라고 명명했을 뿐이다. 그가 민족공동체를 그토록 중시하면서도 해방후 반민족적 친일청산에 대한 줄기찬 노력에 무관심했던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 책이 한국기독교교회사이지만 사실은 한국개신교사로서, 1950년대까지 역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점은 1993년도 신개정판에서도 동일하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의 발전이나 신학, 그리고 교회의 사회활동,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역사 기술의 대상은 적어도 한 세대(30년)가 지난 후여야 한다는 일반적 관계가 없지 않지만, 1945년 해방이후의 역사는 1974년도 판의 경우 전442쪽 중에서 오직 36쪽, 1993년도 판의 경우 640쪽 중에서 55쪽에 지나지 않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내용구성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자의 사안과 관련되지만, "이용도의 신비주의"는 별장(제9장)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1930년대에 시작된 한국교회 전반의 신학적 변화와 발전, 신사참배 강요와 반대와 투쟁, 해방 후의 교회쇄신 운동 등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이 상대적으로 경시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28)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대한기독교서회, 1972), 20.

29) 앞의 책, 15-16.

30) 앞의 책, 365.

민경배의 저작은 몇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기독교 통사를 이처럼 체계적으로 기술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그를 비판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으나, 그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그의 등섭지로(登涉之勞)의 결과로 한국교회의 역사를 헤아려 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재일(在日) 한국인 목사였던 오윤태(吳允台)에 의해 쓰여진 경교(景敎)에 대한 연구인 「韓國基督教史」(景敎史編)의 출판은 우리의 관심을 기독교의 동진(東進) 혹은 동점사(東漸史), 그리고 경교의 나대전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미 1968년 일문으로 「日韓キリスト教交流史」<sup>31)</sup>를 내놓아 종래 한국 학자들이 손대지 못했던 분야를 개척한 오윤태는 5권으로 된 한국교회사를 계획하면서 그 첫 권으로 한국 경교사에 관한 책을 저술한 것이다. 저자는 고대 삼국시대로부터 이 땅을 지배해 온 대승불교의 내면에는 무엇이 그 지주가 되어 왔던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수 페이지 이상을 쓸 수 없었던 한국과 경교와의 접촉의 가능성을, 경교의 한국 전래라는 입장에서 330여면의 책으로 엮었다. 그는 제1권 경교사에 이어, 제2권 한국가톨릭사 1편, 「가톨릭교회의 전래와 성장」(1975), 제3권, 「한국가톨릭사」 2편, 「가톨릭교회의 박해사와 신교전사」(1979), 제4권, 「선구자 이수정편」(1983)을 혜선출판사를 통해 각각 출판하였다. 그의 저술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경교의 한국 전래를 규명하려는 제1권 경교사이다.<sup>32)</sup>

31) 이 책은 「한일기독교교류사」란 이름으로 1980년 혜선출판사에 의해 역간되었다.

32) 저자는 이 책에서 비단길(Silk Road)로 대표되는 동서교류를 논하고, 중국에서의 첫 기독교 전래는 도마의 중국전도에서 비롯되며, 기원 67년에 중국에 도착한 승려 두 사람은 사실은 불승이 아니라 기독교의 선교사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중앙 아시아를 거쳐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진 대승불교는 기독교(Nestorian)와 접촉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즉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가 북인도와 서역의 길을 지나며 기독교(景敎)와 조우하여 대승불교를 이루게 되었고, 중국에 들어온 불교가 고구려, 백제를 통하여 일본에 전래되면서 기독교의 정신이 그 내면에 흐른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불교는 기독교와의 접촉 흔적이 있으며 아미타불(阿彌陀佛), 미륵불(彌勒佛), 대일여래(大日女來)는 예수, 관음보살은 예수와 성모 마리아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고구려와 백제시대의 불교가 서역에서 원시 기독교와 혼합되어 전래된 대승불교이며, 통일신라를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정토교(淨土敎)와 밀교(密敎) 또한 기독교의 한 양식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의 골든(E. A. Golden)은 그의 「道の諸상징」(Symbols of the Way, Tokyo, 1916)에서 이미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유교와 기독교와의 접촉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고, 마태오 뒤틀치는 유교와 기독교와의 유사성을 주장한 바 있었지만, 유교는 '저 세상 일들에 관한 침묵'(Silence sur les choses d' autre vie) 때문에 기독교와 다르다고

자료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경교와 그 관련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일은 큰 공헌이지만, 그의 저서가 갖는 가장 큰 결점은 문헌비판의 결여 등 실증적 연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성 도마가 중국 선교를 했다는 문서는 13C의 문서로서 저작 미상인데 이 13C 문헌이 1세기의 역사를 증거할 신빙성이 있을까? 67년에 중국에 온 불승(佛僧)은 사실은 기독교도라는 것은 3세기 문헌이므로 그 신뢰성이 약하다. 또 삼위일체 교리는 4세기 후반에 확립된 교리인데, 1-2세기에 이 교리적 영향을 찾을 수 있을까? 저자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기독교'라는 항목에서 삼국유사의 내용 중에서 기독교 교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되는 내용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주관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논구되지 못한 한국경교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주었다.

1978년에 출판된 이영헌의 「韓國基督教史」(컨쿨디아사)는 1971년 이후부터 월간 「새생명」에 연재되었던 글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써 한국교회사에 대한 또 하나의 통사이다. 이 책은 민경배의 그것에 비해 대중적이며, 평이한 기술로서 기독교의 한국전래와 수용, 발전과 성장, 기구적 조직, 신학적 대립과 분열 등 한국교회의 역사를 비교적 균형있게 기술했다. 이 책은 저자의 주장처럼 한국근대사, 곧 교회가 처한 사회환경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한국 사회속에 교회의 모습을 기술하려고 애썼고, 제도적, 기구적인 교회만을 다루는 외부적 사건사 중심의 역사에서 탈피하여 교회생활의 내면도 중요하게 취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sup>33)</sup> 이 책은 민경배의 그것과 더불어 한국교회사를 통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저작이지만 김영재의 지적처럼 교회관의 혼돈이 엿보인다.<sup>34)</sup> 이영헌은 “천주교회의 역사도 개신교의 한국 발붙임을 위한 길잡이 정도로 다루지 않고 교회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했다”는 머리말과 같이 “천주교의 한국전교”(제1편)와 “병인교난 이후의 천주교회”(제3편)를 한국개

했다. 토인비는 기독교와 불교의 교리상의 동류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An Historian's Approach to Religion 중 '대승불교와 기독교' 항 참고), 오윤태는 기존의 많은 학설을 종합, 재구성하고 그 범위를 한국불교와 한국사상에까지 연장함으로써 경교가 한국사상의 지주가 된다고 주장한다.

33) 이영헌, 「한국기독교사」, 3.

34) 김영재, 「한국교회사」, 27-28.

신교사 속에 포함시켰다. 다시 말하면 민경배는 천주교의 초기 역사를 그의 책 첫머리에 두고 있으나(제1편, 근대이전의 기독교와의 접촉, 제2편, 한국의 로마 카톨릭교회), 1880년대 개신교의 한국 전래 이후에는 한국의 천주교회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영현은 한국개신교 이전 시대의 천주교의 전래와 발전, 조직, 수난의 역사를 기록하고(제1편, '천주교의 한국 선교'), 개신교의 전래와 그 이후의 역사를 기술한 이후 다시 천주교회의 역사(제3편, '병인교난 이후의 천주교회')를 개신교사 속에 포함시켰다. 개신교의 활동 이전 시대의 천주교회의 전래과정을 개신교회사 기술에 앞서 언급하고 있는 점은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영현은 개신교 중심의 역사 속에 천주교회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이 점은 그가 천주교회와 개신교 간의 교회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교회관의 혼란은 1950년대의 이단들에 대한 기록에서도 엿보인다. 아마도 이영현은 나름대로 불편부당(impartiality)한 역사를 기술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놀드(Gottfried Anold)의 「초교파적 교회사와 이단사」(*Unparteiliche Kirchen und Ketzerhistorie*)에서 보는 바처럼 이것은 공정한 기술이 아니라 무규범적 역사가 되어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크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이 시기에 나온 저작들로는 1832년부터 1905년까지의 역사를 취급한 이호운의 「한국교회초기사」(1970), 장희근의 「한국장로교회사」(1970), 이천영의 「성결교회사」(1970), 장일형의 「한국구세군사」(1975),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에서 편찬한 「대한감리교회사」(1975) 등과 같은 교파 중심의 역사서도 있다.

## 5. 198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사 연구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사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질이나 양에 있어서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른 분명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격승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선교 100주년' 혹은 '한

국기독교 100주년'이라는 이름의 한국 기독교의 지난 세기에 대한 반성으로서 지난 역사를 재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사료에 대한 관심과 사료의 발굴, 그리고 새로운 교회사 편찬 운동이 일어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한국교회에 대한 외국교회의 관심 또한 한국교회사 연구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수행된 외국에서의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나 학위 논문은 해외에서의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는 한국기독교사연구회(1982), 한국감리교회사학회(1884) 등과 같은 연구 단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한국감리교회사학회는 「조선그리스도인 회보」를 영인하고 「한국에 온 첫선교사 귀츨라프」 등을 출판하는 등 나름대로 한국교회사 연구활동에 기여했지만, 특히 이만열을 비롯한 한국사 관계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사연구회의 조직(1982)은 한국교회사 연구를 촉진한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회와 교회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작된 한국기독교사연구회는 1990년 9월에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기독교사 연구」라는 격월 간행물을 30호까지 발간한 바 있고, 1991년부터는 「한국기독교와 역사」를 발간하여 현재 11호까지 발간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교회 통사인 「한국기독교의 역사」 I, II권을 비롯하여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1986),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1991) 등 여러 논설선집과 연구총서 등 단행본을 간행한 바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사 연구에 끼친 이들의 영향은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교회사 연구가 신학을 공부한 교회사가들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한국사 전공 학자들도 이 연구에 동참함으로써 교회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는 점, 둘째는 원 사료의 개발과 공개를 통해 교회사 연구 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에 무관심했고, 원 사료의 제한성(limitation)과 편협성(parochialism)은 선행 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여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영인은 사료의 공유를 가능케 했다. 셋째, 한국교회사 연구의 공개적인 장(場)을 제공함으로써 교회사 연구 인력을 결집하고 연구영역을 확대했다. 넷째, 연구방법

론에 있어서 교회사 연구를 그 사회, 문화적 상황(context)의 빛으로 보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교회나 신학적 문제마저도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그 역사 또한 '탈역사적'(beyond historical settings)으로 해명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1920년대부터 소위 시카고학파에 의해 강조되었다. 한국교회 역사에 대한 이런 역사과학적 접근은 한국교회사 연구에서 새로운 모색이었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 이후 연구인력의 확대, 연구 영역의 다양화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 이후는 그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은 양의 논저들이 출간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만열은 이와 같은 한국교회사 연구환경 조성의 중심에서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출판된 한국교회사 관한 논저들은 다음 몇 가지의 유형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로는 한국기독교 100년을 경과하면서 지난 세기의 역사를 재인식하기 위해 출간된 논저들이나 통사가 있다. 전성천의 「한국영남교회사」(1987), 김영재의 「한국교회사」(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민경배의 신개정판 「한국기독교교회사」(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펴낸 「한국기독교의 역사 I, II」(기독교문사, 1993, 1994), 김인수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대한기독교서회가 발간한 전4권의 한국기독교백년사 대계는 이 시기에 출간된 귀중한 저작이다. 제1권은 전택부의 「한국교회발전사」, 제2권은 송길섭의 「한국신학사상사」, 제3권은 이만열의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제4권은 민경배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교회의 역사를 분야별로 집대성한 귀중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교파나 교단의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는 안수훈의 「성결교회성장사」(1981), 민경배의 「대한예수교장로회백년사」(1984),<sup>35)</sup> 이상규의 「한국장로교회(고신)」(총회출판부, 1986), 한국감리교회사학회가 펴낸 「한국감리교회성장백년사」(기감본부 교육국, 1986), 전성천의 「한국영남교회사」(1987), 이재

35) 이 책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백주년 준비위원회 자료분과 위원회가 1984년 펴낸 예장통합 교단사라고 할 수 있다.

정의 「한국성공회 백년사」(1990), 기독교장로회가 펴낸 「한국기독교백년사」(1992), 김성호의 「한국성결교회사」(1992), 박명수의 「근대복음주의와 한국성결교회」(서울신학대학교, 1994), 정상운의 「한국성결교회사」(은성, 1997)와 「성결교회와 역사연구」(이레서원, 1997)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셋째, 한국교회나 한국교회사와 관련된 특수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들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윤춘병, 「한국기독교 신문,잡지 백년사, 1885-1945」(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김봉희, 「한국기독교문서 간행사연구, 1882-1945」(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민경배,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 신앙운동사(대한기독교서회, 1991), 민경배, 「한국교회찬송가사」(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총신대학교 출판부, 1992), 최덕성, *The Roots of the Presbyterian Conflicts in Korea, 1910-1954, and the Predominance of Orthodoxy* (PhD. Thesis, Emory University, 1992), 김인수, *Protestants and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n Nationalism, 1885-1920: A Study of the contributions of Horace G. Underwood and Sun Chu Kil* (PhD Thesis, Union Theological Seminary, 1993),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1993), 이만열 외, 「대한성서공회사 II」(1994), 전택부, 「한국기독교 청년회운동사」(범우사, 1994), 이덕주, 「초기한국기독교사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이상규, *To Korea With Lov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1889-1941* (ThD. Thesis, ACT, 1996), 이만열, 「한국기독교 수용사 연구」(두레시대, 1998), 박용규, 「한국교회를 깨운 복음주의 운동」(두란노, 1998) 등이 있다.

넷째, 한국교회의 신학에 대한 신학사적 연구로는 하비 콘(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실로암, 1988),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전망사, 1982), 김남식,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사1」(베다니, 1993),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97), 한승홍, 「한국신학사상의 흐름」(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주재용, 「한국그리스도교 신학사」(1998) 등이 있다.



다섯째, 한국교회 인물, 혹은 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로는 김정환, 「김교신」(한국신학연구소, 1980), 김남식, 「백은 최재화 목사의 생애」(성광문화사, 1981), 송길섭, 「일제하 감리교회 3대성좌」(성광문화사, 1982), 민경배, 「순교자 주기철 목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이만열 편, 「아펜젤러」(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김남식, 「이만집 목사의 생애와 사상」(새순출판사, 1987), 민경배, 「알렌의 선교와 근대 한미외교」(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선교사의 생애」(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박윤선에 관한 연구인 서영일의 *To Teach and To Learn: The Life and Times of Dr Yune Sun Park* (ThD. Thesi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2), 미국 북장로교 및 정통장로교 선교사였던 한부선에 관한 연구인 박응규의 *The Significance of Bruce F. Hunt's Ministry in Korea and Manchuria, 1928-1952* (ThM Thesi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2), 그리고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등이 있다.

그 외에도 1980년대를 거처가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있었다. 예컨대 성경번역,<sup>36)</sup> 선교,<sup>37)</sup> 기독교 언론과 문서,<sup>38)</sup> 청년운동,<sup>40)</sup> 지역교회

사<sup>41)</sup> 등에 대한 논저가 출간되었다.

외국인이나 재외 한국인으로서는 서양언어나 일본어로 한국교회 혹은 한국교회사와 관련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로는 강위조(Wi Jo Kang), 한석희(韓?曦), 하비 콘(Harvie Conn), 에베렛 헌트(Everett Hunt), 제임스 그레이슨(James H. Grayson),<sup>42)</sup> 도널드 클락(Donald N. Clark), 마르타 헌트리(Martha Huntley), 다니엘 데이비스(Daniel M. Davies), 케네스 웰즈(Kenneth M. Wells) 그리고 일본인 사와 마사히코<sup>43)</sup>, 구라타 마사히코(藏田雅彦)<sup>44)</sup>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교회사 분야에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이들로는 김광수, 김홍수, 김승태, 박명수, 박용규, 윤경로, 연규홍, 서정민, 심일섭, 이덕주, 이상규, 이성삼, 이진호, 정상운, 차중순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그 이전시대에 비해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므로 이 시기에 대해서만 별도로 논평할 계획이기에 여기서는 다음의 몇 편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992년 개혁주의신학협회에서 개혁주의 신학총서 9권으로 출간된 김영재의 「한국교회사」는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썼던 「한국개신교와 개혁주의 전통」(Der Protestantismus in Korea und die calvinistische Tradition)을 근간으로 수정, 증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통사적 성격의 책이지만 한국교회의 몇가지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교과서적 의미의 통사로는 그 구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이전의 통사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엿보인다. 첫째

41) 지역교회사에 대한 논저로는 전성천, 「한국영남교회사」(양서각, 1987), 김수진, 「호남선교100년사」(고려광, 1992), 김수진, 「호남기독교백년사」(봄날출판사, 1998), 그리고 이상규의 「부산지방기독교전래사」, 「부산지방에서의 기독교 전래와 교육, 의료활동, 1880-1910」, 「호주장로교 선교부의 부산, 경남 지방 선교활동」 등 다수.

42) 羅約翰(John Ross) 한국기독교의 첫 선교사」(계명대학교출판부, 1982), *Early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Korea* (E. J. Brill, 1985) 등의 저서가 있다.

43) 「南北朝鮮キリスト教史」(1982), 「未完朝鮮キリスト教史」(1991), 「韓國と日本の間で」(1994)를 집필했고, 민경배의 「韓國基督教史」(1974), 강위조의 「日本統治下の朝鮮の宗教と政治」(1976), 유동식, 「韓國教思想史」, 민경배의 「苦難と榮光- 朱基徹牧師の生涯」를 일역했다. 또 「일제하 신사문제와 기독교주의 학교」,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393-427 등의 논문을 남겼다.

44) 그의 한국교회사연구에 대해서는 서정민, 「구라타 마사히코의 생애와 학문세계」,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9호, 47-62를 참고할 것.

36) 이덕주 외, 「한글성서와 거래문화」(기독교문사, 1985), 리진호, 「한국성서백년사, I, II」(대한기독교교회, 1996).

37) 손영규, 「한국의료선교의 어제와 오늘」(CMP, 1999), 정혜원, 「조선에 묻힌 사람들의 이야기」(CMP, 1999), 이상규, 「의료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CMP, 2000) 등이 있다.

38) 1970년대에도 여성운동과 관련하여 몇 권의 논저가 출판된 바 있다. 곧, 김현자, 「기독교여성운동사」(한국기독교교육사, 1974), 주신애, 「장로교 여성사」(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1978), 장병욱, 「한국감리교여성사」(성광문화사, 1979).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더 활발한 연구가 일어났다. 김영삼, 「김마리아」(한국신학연구소, 1983), 이우정, 「한국기독교 여성 백년의 발자취」(민중사, 1985), 한국기독교백주년 기념사업회 여성분과 위원회, 「한국기독교여성 백년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배가래, 「성결교회 여성사, 1907-1987」(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출판부, 1987), 김명현, 엄마리 편, 「민족사속의 감리교 여성」(기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1989), 이우정, 이현숙, 「여신도회 60년사」(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1989),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여성들」(기독교문사, 1990), 「한국감리교여성선교회의 역사, 1897-1990」(기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1991).

39) 이장식, 「대한기독교교회백년사」(대한기독교교회, 1984), 윤춘병, 「한국기독교 신문, 잡지 백년사, 1885-1945」(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김봉희, 「한국기독교문서 간행사연구, 1882-1945」(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기독교문사 40년사편찬 위원회, 「책에 담은 복음과 나라사랑」(기독교문사, 1995) 등이 있다.

40) 1970년대 말에 김남식의 「한국기독교면려운동사」(성광문화사, 1979)가 출판된 바 있고, 대한 YMCA 연맹편, 「한국YMCA운동사」(로출판, 1986), 민경배, 「서울YMCA운동사」(로출판, 1993),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범우사, 1994) 등이 있다.

는 민경배, 이영현 등의 저작들과는 달리 칼빈주의적 혹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한국교회사를 기술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의 한국교회사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신학이 있는 역사라는 점이다. 그의 교회사에는 신학적 전통 혹은 지평에서 한국교회사를 기술하고 있어 그의 한국교회사는 한국교회가 무엇을 믿어왔던가를 보여주는 신앙고백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그는 한국교회 역사를 '한국교회 신앙고백의 역사'라는 점에서 기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이 책이 갖는 특징이다. 교회사는 문화사나 한국민족사와 같은 의미의 역사가 아니라, 그 교회가 무엇을 믿어왔던가를 보여주는 신학과 신앙고백의 역사라는 점에서 그는 한국교회사 연구의 신학적 선도성(先導性)을 지닌다. 신학이 없는 역사는 박제(剝製)된 기록일 수 있지만 신학은 역사에 생명(生命)을 불어넣는다.

김영재의 것과 대비될 수 있는 작품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펴낸 「한국기독교의 역사 I, II」이다. 이 책은 여러 학자들의 공동집필로 이루어졌는데, 다양한 사료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역사를 재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역사서술의 편협성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5천년의 역사도 중요한 전통이므로" 민족사란 큰 틀에서,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역사를 편찬한다는 취지는 한국교회사를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민족의 전통'이라는 틀과 실증적 연구라는 계형(係型)은 한국교회사를 한국종교사적 측면에서 헤아릴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실증적 연구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내적, 정신적 흐름을 간과하는 약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고백으로부터 자유한 교회사 편찬은 교회사를 '한 사회에서의 종교현상으로' 인식하여 문화사로 볼 위험이 있고, 결국 신학적 주관을 갖지 못한다. 이 책이 의도했다는 객관적인 혹은 과학적 역사 기술은 랑케(1795-1886)의 말처럼 "있었던 그대로, 되어진 그대로"(geschichte wie es eigentlich gewesen)를 재구성하는 것을 역사의 임무로 보기 때문에 사료의 발굴과 문헌고증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 복원에는 기여했다. 또 사료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배격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사에 대한 하기오그라프들의 오류를 불식시키는데는 유효했다. 그러나 교회사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분석

적 측면(analytical aspect of hoistory), 곧 실재를 인식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신앙의 내적 관련성, 정신적 흐름 등 교회사의 종합적 측면(synthetic dimation of history)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여 사료 의존적인 실증적인 연구는 장점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동적(dynamic) 요소가 경시되거나 무시되기 쉽다. 이것이 이 책이 갖는 한계이다.

민경배와 더불어 한국교회사 분야에도 주목할 만한 저서<sup>45)</sup>를 남긴 대표적인 학자는 이만열이다. 그는 국사학자 출신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기독교사연구회를 통해 1980년대 이후 교회사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의 한국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일관된 시각(視覺)과 시각(視角)은 '민족'이라는 개념이다. 한국교회사의 민족적 기여를 논하고, 민족의 과제와 민족의 문제를 안고 고심했다.<sup>46)</sup> 또 민족이라는 견지에서 서양선교사들의 선교행위를 평가하려고 시도했고, 「한국기독교수용사 연구」에서 보여주는 바처럼 기독교의 한국영입과 수용과정에서 한국인의 독자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것은 그의 민족에 대한 순연(純然)과 애정의 표현일 것이다. 또 이것은 교회의 민족적 기여에 대한 희망이 포함된 일조의 변증적 동기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한국교회사 연구에서 민족이라는 현실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그에게 있어서 민족은 교회사연구의 방법론적 관념이 되었고, 이 방법론은 인식론적 편견에 빠질 위험이 있다.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복수현실'(multiple realities)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족적인 것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그것이 복음이 갖는 보편성보다 상위의 개념일 수 없다. 그는 한국교회사연구회를 주도하면서 실증주의적인 연구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민족이라는 관념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는 민경배와 이만열 사이에 차이가 없다. 바로 이런 연구 경향 때문에 김영재의 「한국교회사」는 한국교회사 연구의 새 지평을 선도했다.

1980년대 이후 가장 주목되는 저술을 낸 이는 총신대학교의 박용규 교

45) 한국교회사와 관련된 이만열의 저술로는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지식산업사, 1981),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대한기독교출판부, 1987), 「한국기독교사 특강」(성경읽기사, 1987), 「한국기독교와 민족주의」(지식산업사, 1991), 「한국기독교수용사 연구」(두레시대, 1998), 그리고 옥성득, 류대영과 공저한 「대한성서공회사, I, II」(대한성서공회, 1993, 1994)가 있다.

46) 이만열, 「한국기독교 민족운동의 전개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281-353 등이 대표적 경우이다.

수이다. 그는 자신의 「한국장로교사상사」에서 한국교회사를 읽은 중핵적 주제인 성경관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기술했다. 역사방법론과 서구신학을 헤아리는 그의 안목은 역사 기술에서 석의적 진술(expository description)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실증적 연구를 여전히 중시하는 한국교회사 연구를 변전(變轉)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인다.

## II. 민족교회사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는 한국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사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한국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4가지 유형의 역사편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평이한 역사서술로서의 교회사, 둘째는 선교사(宣敎史)적 역사편찬, 셋째는 민족교회사적 역사편찬, 넷째는 민중사관에 기초한 역사편찬이 그것이다. 평이한 역사서술로서의 교회사란 역사서술에 있어서 어떤 분명한 일관된 해석적 통일성이 없는 연대적 서술(chronography)이나, 선교기록이나 자료 혹은 문헌 등 사료집(collection), 옛 이야기책(antiquary), 그리고 하기오그래피(hagiography) 등과 같은 이름 그대로 평이한 역사서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이한 역사서술이 하나의 사관이나 역사기술의 한 방법론일 수 없다. 1945년 이전에 나온 다수의 책들과 역사방법론에 훈련이 부족한 이들에 의해 저술된 책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민중사관으로 한국교회사를 읽고, 또 역사를 편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으나<sup>47)</sup> 이에 상응하는 연구나 단행본은 아직 없다. 단지 주재용의 “한국민중과 개신교사”라는 논문<sup>48)</sup>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기독교백년사」가 민중사관을 지향한다고 하나 그렇게 보기에는 미흡하다. 주재용이 말하는 ‘민중사관’이란 한국기독교의 정체성을 찾는데 있어서 기독교의

한국 전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한국기독교의 주체자인 민중이 주체자의 위치에 있게 해야 한다”<sup>49)</sup>고 권려(勸勵)하고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민중이라는 유입된(extrinsic) 관념을 말하고 있어 해방신학에 대한 사대적 추수가 드러날 뿐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의 교단사로 쓰여진 「한국기독교백년사」는 “우리에게 민족사 가운데 민중과 더불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해방사건을 바로 보지 못했다”고 하고 “이제까지 한국기독교 역사 서술이 가지는 방법적 오류와 반민중적 역사 편집”을 비판하지만 이 책속에 소위 민중사관이란 것이 분별될 만큼의 기술적 정직(descriptive honesty)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글에서 평이한 역사서술이나 민중사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소위 선교사관과 민족교회사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선교사관의 문제

교회사 편찬에 있어서 소위 선교사적 관점, 곧 선교사관을 대표하는 이로는 백낙준을 들고 있다. 그는 자신의 역사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독교사는 본질에 있어서 선교사이다. 또한 반드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기독교 사상의 한 중간적 존재이다.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게 되어 있다(고전 11:26). 이 중간적 존재체(存在體)인 교회의 철두철미한 사명은 복음 선포이다. 기독교사는 차초지급에 선교사로 일관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국개신교회사도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를 외인 선교사에 의한 피선교의 과정으로 해석하여서만은 아니된다.<sup>50)</sup>

이만열에 의하면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연구를 ‘순전히 선교의 역사’로

47) 소위 민중사관 혹은 민중신학적 교회사관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주재용이다. 주재용, “그리스도교 역사이해를 위한 사관의 문제”, 「신학사상」, 40호(1983, 봄), 143-159; 주재용, “한국민중과 개신교사”, 「민중과 한국신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문제연구위원회, 1982).

48) 주재용, 「역사와 신학적 증언」(대한기독교서회, 1981), 265-283.

49) 주재용, 앞의 책, 283.

50)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v-vi.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3년 국역관을 내면서 기독교사가 선교사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sup>51)</sup> 아마도 이것은 민경배가 1972년에 출간된 자신의 「한국기독교회사」에서 선교사관을 비판하고 민족교회사관을 피력한 것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 백낙준은 자신의 영문판 저서에서 자신의 사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선교사적 입장에서 한국교회사를 시도했음이 분명하다. 그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쓰여진 「한국개신교사」는 사실은 영문제목의 자구적 의미처럼 '한국에서의 개신교 선교의 역사' (*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s in Korea*)이며, 첫 개신교 선교사의 내한 때인 1832년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했다. 즉 그는 한국교회의 주체적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수행된 외국선교부들의 사역, 곧 '선교사' 연구를 중심테마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교회사를 '선교의 역사'로 보는 소위 선교사적 교회사관을 지향하는 이들은 독일 루터교 교회사가인 슈미트(K. M. Schmidt), 화란의 선교학자 바빙크(H. Bavinck), 그리고 백낙준의 지도교수였던 라토렛(K. S. Latourette) 등을 들 수 있다. 슈미트는 교회를 "세계 안에서 항구적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아, 교회사란 곧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진리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했다. 바빙크는 선교학을 주경학, 교의학, 윤리학, 설교학에 관련시키면서 선교사를 교회의 한 분과로 보았다. 라토렛은 1921년부터 32년간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그는 교회사를 '선교과정의 역사' 곧 '선교사' 혹은 '기독교 확장사'로 이해하였다. 그가 쓴 대표적인 저서인 7권으로 된 교회사를 「기독교 확장사」(*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라고 명명한 사실에서도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라토렛은 교회사를 선교의 과정이라는 일방적 관점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라토렛은 자신의 교회사 편찬에서 7가지 사실에 주목했다고 「기독교 확장사」 제1권 자서(自序)에서 밝혔는데,<sup>52)</sup> 이 점은 그가 복음 전파자와 수용자 양측의 환경에 대해 균형있게 접

근했음을 보여준다. 사실 라토렛의 선교사관은 민경배가 비판하는 것처럼 교회의 선교사적인 기술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교회의 연장으로 그 성장을 통계표에서 추정하는 양으로서 이해하는데 그친"<sup>53)</sup> 것이 아니다. 라토렛은 도리어 복음이 전해지는 해 지역에서의 상황과 환경에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표현대로 '역사에서 예수의 영향' (*the influence of Jesus in history*)을 추적하려 했다. 때로는 그 영향이 '교회의 통로' 밖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는 교회사(*church history*)라는 표현보다는 기독교사(*history of Christianity*)를 선호하기까지 했다.<sup>54)</sup> 따라서 라토렛과 백낙준 간에는 불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교사관은 교회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복음전파의 과정사로 파악하기에 피선교국의 입장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복음의 수용과정에서 제기되는 대립이나 갈등, 혹은 토착교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취급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 2. 민족교회사관

민경배는 선교사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교회의 주체적인 서술, 곧 한 '대상'에 그쳤던 선교사를 탈피하고 '주체'로서의 민족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민족주의 사관으로 한국교회를 읽을 때 비로소 "한국교회의 체험과 삶의 기쁨이 혈맥처럼 파동쳐 올 것이며 우리들 자신의 생과 신

반대에 직면했으며, 때로 부분적인 성공만 거두었는가?(Why has the Christianity suffered reverses and at times met only partial successes?) 넷째, 어떤 과정으로 기독교는 전파되었는가?(By what processes did Christianity spread?), 다섯째, 기독교는 그 처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What effect has Christianity had upon its environment?), 여섯째, 그 처한 환경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What effect has the environment had on Christianity?), 일곱째, 기독교 확장과정에서 기독교가 그 처한 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 처한 환경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What bearing do the processes by which Christianity spread have upon the effect of Christianity on its environment, and of the environment upon Christianity?)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1*, Zondervan, 1970, x-xv.

5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1993), 16.

54) Richard W. Pointer, "Kenneth Scott Latourette", *Historians of the Christian Tradition*, Michael Bauman, Martin Klauber ed.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418.

51)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2호(2000. 3), 17.

52) 7가지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파된 기독교란 무엇인가?(What was the Christianity which spread?), 둘째, 왜 기독교는 전파되었는가?(Why did Christianity spread?), 셋째, 왜 기독교는

양의 교섭관계가 역력히 몽글하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1960년대를 거처가면서 민족의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현대화라는 이름의 서양화의 과정에서 과학, 기술 영역만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영역에서도 외래적인 것의 급속한 전파와 함께 전통문화와 우리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외래적인 것은 무조건 배척되어야 하고, 우리의 것은 무조건 계승되어야 한다는 맹목적인 소위 '문화 민족주의'가 이 시대의 정의가 되었다. 이 문화 민족주의가 서양의 신학전통을 반대하고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증시하는 소위 '한국적 신학', 혹은 '민족교회' 개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오늘 우리에게 보다 우선하는 것은 "민족교회의 주체적 서술"이 아니라, 그 사관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타당한가에 있다.

서구적 개념에서 '민족교회' (Volkskirche)란 일반적으로 '국가교회' (Staatskirche)에 대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교회'라는 실체도, 용어도 없었다. 민경배는 '민족교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교회'가 기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개념도 모호하다는 점이다.<sup>55)</sup>

아마도 3가지 혼합적인 이유에서 민족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다. 첫째는 교회사 서술에 있어서 방법론적 측면이다. 민 교수는 "... 한국교회사가 아직까지 민족교회사의 입장에서 취급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제는 한국교회사의 주체적인 서술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보았는데, "한 '대상'에 그쳤던 선교사를 탈피하고 '주체'로서의 교회를 쓰고자" 하는 교회사 서술의 방법론을 그는 '민족교회론'으로 보는 것 같다.

둘째로, 미국의 교파교회와 다른 유럽의 국가단위적 교회를 민족교회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민 교수는 자신의 책 '한국민족교회 형성과정사'라는 부제를 통해 민족교회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암시하였으나, 제14장에서는 "한국민족교회 형성의 좌절"을 논하고<sup>56)</sup> 민족교회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그는 사실상 한국에는 민족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족교회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 신앙고백과 역사, 환경적 요인에서 발생한 미국의 교파교회와 다른 유럽의 국가단위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경배는 교파 없는 하나의 교회를 한국의 민족교회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로, 민 교수는 우리 민족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서 수용한 교회, 그리고 민족의 이쁨과 고난을 함께 한 교회라는 점에서 민족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민족교회를 민족공동체와 어께를 맞대고 고난의 근대사 속에서 여정을 함께 한 교회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민경배는 한국교회사 서술에서 민족이나 민족적 동기를 규범적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첫번째 위험성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양상으로 보는 환원주의에 빠질 위험성이다. 한국교회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한국교회사를 파악할 때 한국교회를 엮어온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배제함으로써 한국교회사 읽기가 환원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두번째 위험성은 김영재의 지적처럼 한국교회의 독자성(Eigenständigkeit)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57)</sup> 민족감정, 민족의식, 민족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배타주의는 소위 '민족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거리가 멀다. 이럴 경우 교회의 보편성 혹은 일반성(ecumenicity of the church)이 무시될 수 있다.

55) 민경배는 자신이 말하는 민족교회는 "저 악명의 volkskirche가 아니다. 아모스가 공격한 선민의식도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 다시 말하면 성서의 구속적 진리라든가, 인간성, 종교적 자유와 같은 대의가 선행하며 확립되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지역에서의 실현을 추진해 나가는 단위개념일 따름이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말하는 민족교회 개념은 "단체 신채호(申采浩)의 국혼적(國魂的) 민족주의와 무관하고 더욱이 비아(非我)의 절대 적(敵)이라는 당정과는 근본적으로 상극한다."고 말하고 있다(위의 책, 17). 그렇지만 '민족'이라는 배타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적인(?) '민족교회'가 가능하거나 실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민족교회' 개념이 신학적으로 정당한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56) 위의 책, 289ff.

57) 김영재, 앞의 책, 31.

### III. 결론 - 교회론적 역사편찬을 지향하며

앞에서 고려해 본 대로 선교사관과 민족교회관은 각기 한계와 문제를 지니고 있다. 개별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며 교회의 보편성을 잃지 않는 대안이 없을까? 필자는 하나의 대안으로 교회론적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회사, 혹은 교회사관에 대한 모든 논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고전 12:27)이라고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공동체이며, 따라서 교회는 보편성(ecumenicity)을 지닌다.<sup>58)</sup> 한국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그 보편적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지역교회(Local church)는 예루살렘 교회였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체로 하여 교회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즉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그리고 로마로 전파되는 서진(西進) 혹은 서행화(西行化)의 과정을 밟아왔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국에까지 전파된 것이다. 한국에 설립된 교회는 어떤 새로운 교회나, 어떤 독자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참된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동일한 교회가 한국에도 설립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설립하시는 일을 한국에서도 계속하셨을 뿐이다.

교회에 관해 가장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2:19)고 했다. 에베소는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등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이들 지역교회들보다 후기에 설립된 교회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 에베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와 다른 독특한 교회로 말하지 않았다. 도리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미 있는 교회와 무관한 다른 어떤 조직체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합류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는 어떤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류했을 따름이다. 한국교회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한국에서의 교회’(church in Korea)일 뿐이다.

이런 성경의 교회론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말할 때 ‘한국교회의 고유성’(proprium coreanum)은 존재하는가?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들, 곧 ‘미국교회’ ‘영국교회’나 ‘독일교회’ 혹은 ‘화란교회’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독창적인 일면이나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가? 비록 문화적 특수성은 있을 수 있으나 고유한 교회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민족교회사관은 고유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존재해 온 교회의 전통과 역사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이런 입장은 교회의 역사성보다는 현실성을 중시하는 종파적 입장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한국교회의 고유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고, 한국이라는 민족공동체의 특수한 일면이 교회의 생활과 삶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적’ 특수성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가 라틴교회와 신학과 예전을 달리 했듯이 지역적 특수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교사관이 복음의 전파와 확장이라는 점에 치우쳐 선교지역의 역사적 상황이 충실하게 고려되지 못한다면, 선교사관과 민족사관 양자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관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교회의 역사와 신앙을 세계교회의 역사와 전통, 곧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 교회의 보편성에 기초하여 읽고, 반대로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세계교회의 전통을 보는 새로운 역사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선교사관과 민족교회 사관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즉 우리 민족의 역사현실을 고려하면서도 교회적 전통을 중시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역사관을 ‘교회론적 사관’이라 하면 어떨까? 교회론적 역사편찬의 특징은 한국교회사를 한국이라는 지역이나 민족적 한계 속에서 보지 않고 세계교회사적 지평에서

58) 천주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화 동일시하고, 자기들의 교회는 무오한 신성불가침의 유일한 교회로 이해한다. 그러나 개혁신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성으로 이해한다. 곧,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지역교회는 그 몸의 지체임을 의미한다.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한국교회를 세계교회사적 지평에서 헤아리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세계교회를 한국교회사적 눈으로(Korean reading) 헤아리는 상보적 호혜의 원리를 증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역사읽기에 독자의 환경을 반영하는 '거울이론' (mirror theory)에 귀기울여야 한다.

교회사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어떤 규범(norm)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교회사 서술의 규범이 무엇인가? '민족'이라는 개념은 한 시대의 특수한 집단의 가치이므로 교회사 서술의 보편적 가치일 수 없다. 교회와 교회를 보는 규범은 그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했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역사가 국경분쟁의 와중에서 토지문서라면, (한국)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응답해 왔던가를 보여주는 신앙고백적 문서이어야 한다. □

# The Evangelical Attitude Toward Social Activity

사회활동에 대한 복음주의적 태도

이복수 교수  
Prof. Dr. Bok-Soo Lee

- I. The element which the evangelical standpoint is apt to ignore about social activity. ----- 174
- II. The evangelical attitude of social activity as a right standpoint: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 176
  - 1. Through the redeemed person ----- 178
  - 2. Through Banding together with other Christians ----- 182
  - 3. Through the various responsibilities of Christians ----- 182
- III. A boundary of social activity for the evangelical churches --- 184
- IV. Conclusion ----- 188